

“전문의료인 중심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당장 급하다”

지역 의료계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선제 대응 나서야”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성 나서... 뒷북 대처 지적

보건소·병원 역할 분담 불명확... 지킴 마련 조정 필요

광주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일선에서 방어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내에 의료인 주축으로 감염병을 관리하는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지만, ‘너무 느긋한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를 고비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지역 의료계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면서 “감염병 관리지원단과는 별개로 하루빨리 관(광주시) 중심이 아닌 전문 의료인을 대표로 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 중이다.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아 예방의학과, 감염내과 등 전문가가 있는 대학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지역 단위 감염병 예측과 대응을 이끄는 조직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11곳에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감염병 관리 지원단 설립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다가, 이달 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올 하반기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시는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돌아서자, 다시 올 상반기내로 설립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해 10명 안팎의 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부터 정부 공모에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워낙 거세고 예측 불가능해 지금 당장 지역 의료계와 광주시간 실시간 실무 협조가 가능한 ‘민관 협

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역 의료현장에선 코로나19 관련 보건소와 1, 2, 3차 병원간 진료 지침이나 영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환자 등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신민호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전담 병원 지정 등 큰 틀의 장기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된 듯 하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보건소와 각 병원간 역할 분담 등 디테일한 부분은 지침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며,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구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인도 “이제는 중앙정부 등의 대응만으론 안된다. 광주시는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한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염자 급증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보건소와 1, 2, 3차 병원간 역할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시 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4일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전남대병원.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병·의료원 4곳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728 병상 확보

기존환자 이송·통원치료 권고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등 광주·전남 병원 4곳이 보건복지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빛고을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제2오양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최종 지정됐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류머티즘·퇴행성 관절염 전문 질환센터로, 160병상이 있으며 이 중 150병상을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률은 90%로, 병원 측은 이날 오후부터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경증 환자는 보호자와 협의해 자가용 등으로 이동하고 중증환자는 구급차를 이용할 방침이다.

196병상 중 80%가 입원 중인 광주시립

제2오양병원도 환자 이송 준비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날 50%, 오는 28일까지 환자 이송을 100% 완료해달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많아 25일까지 부터 본격적으로 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지방의료원인 순천의료원과 광주시립제2오양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이날 50%, 26일까지 70%, 28일까지 100% 환자 이송을 완료해달라고 의료원들에 요청했다. 순천의료원은 총 282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44명이 입원 중이다. 의료원 측은 이송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정신과병동 병상을 제외하고 202병상(60개 병실)을 전담 병원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환자들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지역 6개 병원에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강진의료원은 전체 180병상 중 80명이 입원 중이며 28일까지 인근 병원에 환자들을 분산 이송하거나 통원 치료를 권장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설치된 국가 격리 병상 12개 이외에 기독·보훈병원 등 7곳에 17개의 음압 병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남대·조선대병원 음압 병실 중 10곳이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치료에 사용 중이다. 전남에는 화순, 목포, 순천, 강진, 해남에 24개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음압 병실 외에도 소방학교 생활관 77실, 5·18 교육관 27실 등을 자가 격리 시설로 추가 지정해 필요시 접촉자들을 관리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사 의뢰자 급증...전남도, 진단검사 기관 확보 총력전

여수검역소 코로나 검사 가능

화순전남대병원 등도 협의 진행

전남도가 코로나 19 진단검사 기관을 추가로 찾아 나섰다.

대구발(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총격과로 검사 의뢰자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장비·시스템으로는 검사를 적기에 진행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여수검역소와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여수검역소에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 19 검사 대상자를 ‘선박·항공기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으

로 제한했지만 동부권 주민들도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수검역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수검역소 적정 검사 건수는 하루 30건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화순전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 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진 이후 진단 검사 의뢰가 폭증했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까지 도내 유일의 검사 기관이었던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의 경우 적정 검사 건수는 하루 50건이지만, 검사 의뢰가 밀려들어 장비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선후검증을 따져 도 내에서 소화하기 힘

든 검체는 수도권 민간의료기관에 검사를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남에선 총 761건의 코로나 19 검사가 이뤄졌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건수(333건)보다 수도권 민간 의료기관에 맡긴 건수가 428건으로 100건 가까이 많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검체를 보내 검사를 맡길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시간이면 가능했던 것이 2일 가량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검사 의뢰가 급증한 상황에서 도 내에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교·출근 자제”...대국민 예방수칙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와 출근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 배 포함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수칙에는 기침이나 목아픔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진에게는 해외여행력이나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자, 신부전, 당뇨 같은 병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지 않는 편이 좋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연합뉴스

민주 “국민계 송구”...대면 접촉 선거운동 중단·코로나 대응 올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면접촉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도 이 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면 중단 결정을 공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신천지 교인들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 “연락 두절된 교인을 비롯해 모든 교인이 방역당국에 협조할 것을 교단에 요청한다”며 “신천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도 전면 중단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에 따

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면 중단 결정을 공시했다. 소속 예비후보들은 SNS 홍보와 전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게 된다.

송갑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제 21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기간이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